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 회장은 왜 무죄인가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법

2022년 1월 29일 오전 9시 50분,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시업소 채석장에서 약 30만㎡에 달하는 석분토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20여 년에 걸쳐 대규모로 쌓아온 야적 사면이 붕괴하면서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되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가 발생한 날은 중대재해처벌 등에관한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불과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경영책임자에게 실질적인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이 법이 현장에서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었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다. 법원은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3고단834 판결). 검찰은 정도원 회장이 그룹 전체를 사실상 총괄하는 지위에서 계열사의 안전보건을 지배·관리했다는 취지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가목은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법원은 이를 해당 사업의 법적 대표자이거나 실질적으로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자라고 해석하면서, 그룹 회장이나 지주사 대표이사가 계열사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는 그가 해당 계열사의 안전보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권한을 행사하거나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기준으로 법원은 정도원 회장이 삼표(지주사) 대표이사이자 삼표산업의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긴 했으나, 삼표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실질적 총괄 권한이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룹 회장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고, 실제로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그룹 총수를 경영책임자로 보아 형사처벌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판결로 그룹 회장이라는 직함

등 단순한 그룹 내 지위나 계열사 이사 겸임 사실만으로 곧 해당 계열사에서의 경영책임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권한과 책임의 귀속이 핵심 판단 기준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그룹 회장을 계열사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기소하려면 직위나 계열사 이사 겸임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계열사 안전보건에 대한 실질적 총괄 권한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할 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권한과 의무를 부과해 업무수행 체계를 분명히 구축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핵심이다. 특히 지주사와 계열사 간 안전보건 관련 역할과 책임 범위를 내부 규정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문서화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형사 리스크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본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실질적 권한과 책임의 귀속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한 사례다.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법인 바른

AI 혁신, 절차부터 혁신해야



김지수첩

김주형
(금융부)

인공지능(AI)은 데이터를 먹고 자란다. 학습할 기록이 없다면 그럴듯한 답을 내놓을 수는 있어도 믿을 만한 판단을 만들기는 어렵다. 보험연수원의 AI 합작투자를 둘러싼 갈등도 마찬가지다.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금융위원회가 공식 문서 없이 전화로 반대 입장만 전했다”며 이를 ‘유령행정’이라고 불렀다. 보험연수원 10억원과 대만·싱가포르 기업 15억원 등 총 25억원을 출자해 교육 AI 솔루션을 사업화하려던 계획이 금융위의 제동으로 좌초될 처지라는 주장이다.

지난 7일 투자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던 이사회는 결국 연기됐다. 하원장은 금융위의 반대로 정상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일에는 국회에서 금융위의 사업 개입 경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금융위가 비영리법인의 영리회사 출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 근거부터 문서로 밝혀야 한다. 감독당국의 한마디는 유관기관에 사실상 지시처럼 작용한다. 그런데 전화로 전달된 반대에는 어떤 규정에 따른 것인지, 누가 책임지는 판단인지도 남지 않는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을 바로잡을 통로도 흐릿해진다.

하지만 ‘AI’라는 두 글자도 모든 질문을 지워주는 면허는 아니다. 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과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보험연수원은 업계가 함께 만든 비영리기관이다. AI 신사업이라도 출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누구와 왜 손잡았으며, 손실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지 이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차기 원장 취임 후 3개월 안에 취

득 원가로 지분을 되팔 수 있도록 풋옵션을 뒀다는 설명 역시 위험을 낮추는 장치일 뿐 사업성 자체를 증명하지는 않는다.

노조는 이사회 승인 전 합작법인 등기와 사무실 임대차계약, 자본금 납입 등이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다수 이사가 사업성과 절차를 우려한다는 주장도 내놔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사실관계는 더 가려져야 하지만, 연수원이 투자 타당성과 의사결정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까지가 버워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어느 쪽의 목소리가 더 큰지가 아니다. 금융위는 반대의 법적 근거와 의사결정 과정을, 보험연수원은 사업계획과 합작사 선정 기준, 투자 위험과 사전 진행 경위를 내놓아야 한다. 오는 10일 예정된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기자회견도 ‘월권’과 ‘직권남용’이라는 말의 수위를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판단의 근거를 공개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gh471@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0일 (음 6월 28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목표를 향해邁進하세요. 60년생 조금 부족하여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72년생 아랫사람을 잘 챙겨주세요. 84년생 친구에게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49년생 희망하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61년생 혼자 떠나는 여행은 금물입니다. 73년생 호랑이를 만나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습니다. 85년생 잠시 기분전환이 필요합니다.



50년생 예정된 여행이나 출장은 잠시 미루세요. 62년생 새로운 기운을 위해 주변 환경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74년생 현재 상태를 잘 사수하세요. 86년생 내일은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51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겠습니다. 63년생 달빛이 하늘에 환하니 하늘과 땅이 다같이 환합니다. 75년생 큰 일을 하려는 사람은 작은 근심을 버려야 합니다. 87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52년생 동서남북이 모두 길방입니다. 64년생 침착성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76년생 바라는 것을 너무 이루려고 애쓰지 마세요. 88년생 계획을 변경하지 말고 원안대로 추진해 나가세요.



53년생 오늘은 일찍 귀가함이 좋겠습니다. 65년생 곤욕을 치루다가 귀인의 도움으로 만사해결 되었습니다. 77년생 지금은 운대가 다소 약합니다. 89년생 여색을 조심하세요.



54년생 누군가 나를 음해하려 하고 있으니 조심하세요. 66년생 편안하고 순탄한 하루를 보냅니다. 78년생 쌍방이 만족할만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90년생 감기 조심하고 음식도 삼가 해야 합니다.



55년생 다툼을 하려거든 가끔씩 내일로 미루세요. 67년생 시간이 흐를수록 차츰 이루어집니다. 79년생 때를 만나 움직이니 서둘러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91년생 혼들리지 말고 마음을 굳게 다지세요.



56년생 방황을 하던 중 뒷사람이 돕게 됩니다. 68년생 외출을 삼가는데 좋습니다. 80년생 재물이 생기지 않으면 슬하에 영화가 있을 것입니다. 92년생 마음이 산란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57년생 말을 조심해서 하세요. 69년생 모든 것이 길한 하루입니다. 81년생 욕심을 버리고 그 동안의 일을 정리할 때입니다. 93년생 모든일을 침착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진행하세요.



58년생 고민하던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됩니다. 70년생 평소보다 건강에 주의하세요. 82년생 물가에서 노는 것을 가끔씩 삼가는데 좋습니다. 94년생 원대한 소원이 뜻밖에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59년생 맛있는 음식으로 하루 기분이 좋아집니다. 71년생 노력의 대가가 따르는 보람찬 하루입니다. 83년생 욕심내어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세요. 95년생 오늘은 금전운이 매우 좋습니다.



김상회의四季

운명 알기

존재로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숙명이다. 그러나 그 숙명 안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운명이다. 끝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 명(命)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멀리 있는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소설 대망(大望) 중에 나오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말이다. 그는 무시와 치욕 속에서도 자기 속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버틴 후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어 에도막부를 연 인물이다. 그가 최종 승자가 된 것은 무엇보다 인욕의 힘이였다. 인욕의 고통이 그가 운명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든 것이다. 바로 버티는 인생은 고(苦)라고 일갈했다. 행복이라 여가는 것도 본질은 괴로움이라고 본 것이다. 왜냐하면, 행복이 영원히 지속하지도 않을뿐더러 조건 따라 행복이었던 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통찰이고, 무엇보다 이러한 것이 운명의 재료가 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존재의 본질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결핍은 욕구를 잉태하고 있기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배고프면 먹으려 하는 욕구는 본능인 것처럼 말이다. 인생의 여정이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기에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어려움과 여러 난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뭔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작용하는 원칙이나 섭리들이 느껴지고 알게 되기 시작했다. 해가 뜨고 지고 달이 차고 이지러짐에 따라 달리 작용하는 현상들, 별이 움직이고 밝고 흐려짐에 따라 드러나는 현상들이 관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데서 운명의 프로토타입을 추출하게 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밝힌 이들이 북회씨와 주나라 문왕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세익한한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세븐은 고난이도의 퍼즐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8	2	7	9	2	1	6	8
9	7	1	8	6	9	8	2	9
6	2	8	2	1	8	7	9	9
7	9	9	1	2	8	6	2	8
2	6	8	9	9	7	6	1	2
1	8	2	6	8	2	9	9	7
2	1	6	8	7	9	2	8	9
8	9	7	2	1	9	8	6	6
8	2	9	9	6	2	2	1	1

1	2	2	8	9	8	7	9	6
8	9	9	6	7	1	2	2	8
6	7	8	2	1	8	9	1	8
2	8	1	9	2	7	8	6	9
9	8	9	1	8	6	2	2	7
7	2	6	9	8	2	1	8	9
8	1	8	2	6	9	9	7	2
9	6	2	7	1	9	8	8	2
2	9	7	8	2	8	6	9	1